

자활지원사업,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이 아니다!

2000년 10월 사회복지분야에는 커다란 변혁이 일어났다.

그동안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근간이었던 생활보호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체된 것이다. 변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근로능력의 유무와는 상관 없이 소득, 재산기준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생계급여의 한 축과, 강제성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스스로 가난을 탈피할 수 있는 자활지원의 또 다른 한 축이 균형을 이루며 제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자활지원 사업은 빈민운동에서부터 출발하여 90년대 중반 시범사업의 과정을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함께 안정적인 제도화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자활지원사업과 관련된 민간 전달체계로는 현재 자활후견기관 242개소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급자를 포함하여 빈곤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적절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현재 전국 242개소의 자활후원기관에서 수급자를 포함한 빈곤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포함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자활지원 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은 있지만, 사회복지사들은 오늘도 바쁘게 하루를 지내고 있다.

자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그동안의 사회복지 대상자와는 분명한 차이 있어

자활지원 사업은 분명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그간 사회복지 선배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온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의 영역으로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패기와 열정이 필요한 곳이지만 막상 자활지원 사업으로 투신하기가 꺼려지는 것은 왜일까? 필자는 위의 두 가지 의문점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유 찾기로 이 글의 의의를 대신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자활지원 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이 새로운 도전으로 오해받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한다. 자활지원 사업의 주된 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이다. 한두 가지 이상의 고질병이 있고, 지금 현재 빈곤의 울타리 속에서 피폐한 삶을 살고 있으며, 국가의 지원이 중단되면 당장 생계걱정을 해야만 하는 그런 분들이다. 하지만 그러한 내면적 특성에 비해 겉모습에서는 요보호 대상자로 보여 질만한 특성을 찾기가 어려워 사회적 관심을 끌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부족하고, 사회복지영역에서 그동안 도움을 주었던 대상자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필자 주변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용불량에다가 정은 해체되고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 있지만, 자활사업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런 분들을 자활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금 돕지 않는다면, 자활이라는 기회를 영영 가질 수 없으며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돌 봐야 할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자활사업의 성과에 대한 그동안의 오해들

대상자에게 적합한 아이템 발굴과 비전 제시 중요해

두 번째 이유로는 자활지원 사업 본연의 성격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 생각한다. 자활지원 사업의 궁극적 목표가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자립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활지원 사업을 단순히 돈을 벌고 취업을 시키며 사업체를 운영해 나가는 경제적 측면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 그래서 자활지원 사업이 생소하고 과연 사회복지 영역일까 하는 의심이 생겨나서



▲ 자활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비전을 가지고 계속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다. 3D 업종처럼 소외되어 왔지만 복지계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면 더욱 안정화단계로 들어갈 것이다.

것 같다. 하지만 분명 자활지원 사업은 중요한 복지영역이고 향후에는 자활지원복지로까지 이름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저소득계층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적합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임파워먼트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자활사업 참여자가 비전을 가지고 계속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자활지원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사업 참여자를 둘러싼 어려운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자활지원 사업을 통해 산출되는 유용한 사회적 서비스들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반들을 활용하여 자활사업체가 생산하는 물품과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토록 하는 것도 자활지원 사업의 핵심적 내용이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은 수많은 세부영역들을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역할을 가장 적절히 수행해낼 수 있는 집단이 누구인가? 바로 사회복지사에게 자활지원 사업은 중요한 복지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복지영역에서 자활지원 사업을 3D업종처럼 취급하여 소외시켜온 것 같다. 자활지원 사업이 사회복지의 모든 지식과 기술, 가치를 꽃피울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아무리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자활의욕을 생성한 들 자활지원 사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그간의 노력과 투여된 자원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간땀 도시락’ 사건 이후 모범 자활도시락 업체 소개
경제적 잣대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중요한 자활 성과
 2000년부터 시작된 필자의 자활지원 사업 경험이

● ●

자활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영역 복지영역전체 관심과 도전 필요

● ●

비록 미천하긴 하지만, 자활지원 사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몇 가지의 생각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자활지원 사업의 주요한 산출물이 경제적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여, 시장논리로만 자활지원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자활지원 사업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탈락된 사람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미 불리한 출발을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치열한 경쟁과 생존, 도태의 과정을 겪게 되는 시장논리의 잣대만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분명 고려되어야 할 다른 성과물이 있다. 그러면 다른 성과물이란 무엇일까?

최근 들어 “메추리알 도시락” 과 “건빵 도시락”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미처 예산이 준비되지 못한 채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 이러한 웃지 못 할 결과가 나타났다.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업체에게 결식아동 도시락사업을 맡겼으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 이후 모범적인 결식아동 도시락 사업체들이 속속 언론에 소개되었는데, 대부분은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체였다. 그동안 우리의 자활사업체들은 사회의 지원을 되갚기 위해 나눔의 자활정신을 추구하며 큰 수익을 바라지 않고 결식아동의 도시락을 만들어왔던 것이다. 이런 결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이런 부분이 자활지원사업의 위대한 성과이며 경제적 논리만을 추구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자활지원 사업은 이번 결식아동 도시락 사건을 통해 그간 자활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을 떨쳐 버리고 생산되는 물품들에 대해 괜한 의심을 받은 설움을 극복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자활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일반 경쟁업체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관

국에, 이제야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비록 늦은 출발이었지만, 복지영역 전체에서의 관심과 사랑은 자활지원 사업이 보다 안정화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생산된 서비스와 물품의 수준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복지영역 전체가 자활지원 사업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사명을 가졌으면 한다. 또한 자활지원 사업은 분명 매력 있는 복지의 중요한 영역이기에 후배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도전을 강력히 추천하고 싶고, 자활사업 수행준비가 된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해 교육기관들의 노력도 당부 드리고 싶다.

그간 자활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빠른 정착과정 속에서 경착륙을 요구받아 왔다. 우선적으로 양적 확대는 이루어 냈지만, 이제는 질적 성장을 통한 내실을 다져 나가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활지원 사업의 핵심 인프라인 사회복지사들의 경험과 열정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잘 이해내며 지금의 자활지원 사업을 있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 선배 사회복지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글: **엄 태 영** _ 연세대학교
강서자활후견기관 실장
사진제공: 한국사회복지사협회